

길에 딸 뉘어놓고 부부싸움하다 딸 치사

지난달 20일 춘천시 삼천동 양지산장 앞길에서 이 마을에 사는 최모 씨(25) 부부가 8개월 된 딸 주희 양을 길옆에 내려놓고 부부싸움하는 사이 주희 양이 뺑소니 차에 치어 숨졌다.

부인 이모 씨(22)가 부부싸움 끝에 딸 주희 양을 업고 친정으로 가려 하자 남편이 큰길로 쫓아나와 말리는 과정에서 이 씨가 업고 있던 아이를 땅에 뉘어놓고 다시 말다툼을 벌이는 사이에 춘천 시내쪽으로 달리던 회색 프레스토 승용차가 주희 양을 치고 달아난 것.

가정의 현주소)라는 주제로 지난 6일부터 3일간 서울, 부산, 대구, 광주 등 전국 6대도시 만20세 이상 가정주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부의식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.

이 결과에 의하면 주부의 59.1%가 가사를 직업으로 응답했고 주부의 40.2%가 가사중사이외의 직업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현대 주부들이 점차 사회적 활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려는 경향이 높다는 반응이며, 가사=직업 인식 역시 주부들 스스로의 역할 인정은 물론 사회적으로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인식 증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.

의처증 가장 부인과 딸 살해 후 자살

부인이 강도에게 성폭행당한 것을 의심한 30대 가장이 부인과 딸을 흉기로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.

지난달 20일 오전 7시 40분쯤 대구시 동구 김영만 씨(52) 집 2층에 세들어 살던 김모 씨(38)와 부인 유모 씨(33), 딸(7) 등 3명이 흉기에 찔린 채 숨져 있는 것을 아들(9)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.

